

# '마을교육생태계 운영 필요성에 동의'

###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전북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인식·지원방안 연구 수혜 교원·마을교사들, 생태자원·환경이해 교육 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 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와 마을, 교사와 지역주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전북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전북교육협력지구(도교육청과 14개 시·군 지자체가 협약해 1:1 대응투자를 통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약 87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한숙경)에서는 학교 교원, 마을교사(마을교육공동체),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지자체 교육협력 업무담당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는 전북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에 대한 인식 및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마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7월에는 교원·마을교육공동체 대표·교육청 장학사·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먼저, 교원 1,183명, 마을교사 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을교육생태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교원과 마을교사 모두 높은 수준에서 동의했으나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이나 전북교육협력지구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적에 대해 교원은 '학생의 지역 이해 증진'을 마을교사는 '마을 및 학

교 인력의 교육생태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어 교원과 마을교사가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교육협력사업은 '생태자원 및 환경이해 교육'과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주, 군산, 정읍, 진안, 부안, 순창 지역의 4주체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 결과,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거버넌스는 최근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부터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거버넌스 구성원 간 철학 및 비전 공감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 △구성원 간 연대 강화 및 지속성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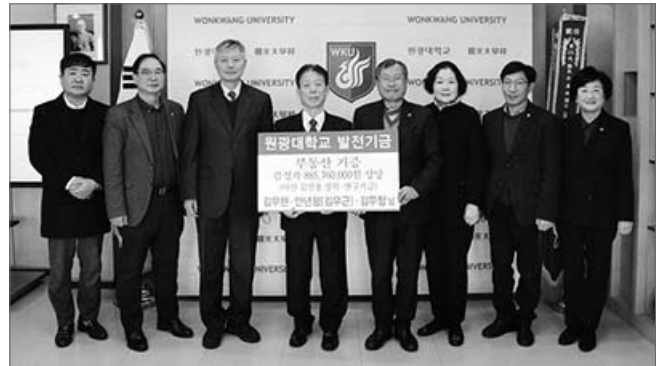
나타났다.

또 전북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특화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 교육협력 사업들이 14개 지역별로 특색을 살려 다양하게 이뤄지면서 양적 기반이 구축된 점을 가장 큰 성과로 인식했다.

한숙경 소장은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도교육청과 지자체 등 4주체가 전북의 미래교육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협력력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이번 연구보고서 및 한 해 연구 성과물을 총망라한 '2022년도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차보고회'를 오는 20일 전주교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학교 초대 관리처장을 지낸 이산 김인용 처장 자녀들이 김경가 9억원 상당의 토지를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 '대학 발전 위해 써주세요'

### 김인용 원광대 초대 관리처장 자녀들 9억원 상당 토지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초대 관리처장을 지낸 이산 김인용 처장 자녀들이 김경가 9억원 상당의 토지를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김우현 명예교수, 김우정 의사학과 동문이 공동으로 소유한 이 토지는 익산시 신동 대로변에 위치해 자산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전달식이 진행된 가운데 김우현 교수와 가족들은 "원광대 설립 때부터 대학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신 부친의 학교 사랑 뜻을 받들어 우리 대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지를 기부하게 됐다"며, "부친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김요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박맹수 총장은 "이산 김인용 원정사는 송산 박길진 초대총장, 문산 김삼룡 총장과 함께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공도자로 매년 추모제를 올리고, 모든 교직원의 사표(師表)가 되는 분인데, 그분의 뜻을 이어 자녀분들까지 학교발전을 위해 큰 뜻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산노과 김우현 교수님 그리고 가족분들의 고귀한 정성이 원광대 도약에 큰 원동력이 되도록 모든 구성원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산 김인용 처장은 근검절약 정신으로 학교 살림을 도맡아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도 의과대학과 원광대학교병원 설립을 이루어내는 등 원광대가 종합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큰 공덕을 쌓고 퇴직 후에는 원불교 교무로서 수행에 전념했으며, 원광대는 지난 2017년 개교 70주년을 맞아 대학을 빛낸 5인으로 선정하고, 학생지원관 1층에 부조 등판을 새겨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 전북대 평생교육원, 16일 하태규 교수 초청 특강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안병호)은 16일 오후 3시 하태규 교수(사학과)를 초청해 인문학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대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평생교육원 인문학 특강은 매달 주제별 명사들의 삶이 부영된 이야기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채워주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마련되는 이번 인문학 특강에는 하태규 교수가 '인문학의 초기 융치전투와 호남방어'라는 주제로 이치전투와 함께 임진왜란 초기 호남방어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융치전투의 전개과정과 임란극복에 있어 전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8~9일 양일간 제주 에코그린리조트에서 LINC 3.0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대학 간 업무 협약 및 기업협업센터(ICC) 운영 활성화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 LINC 3.0 사업 참여 5개 대학 힘 합쳤다

### 전주비전대·제주관광대·군장대·전주기전대·계명문화대 등 ICC 산업분야 핵심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협약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8~9일 양일간 제주 에코그린리조트에서 LINC 3.0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대학 간 업무 협약 및 기업협업센터(ICC) 운영 활성화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최승훈 사업단장을 비롯해 제주관광대학교, 군장대학교, 전주기전대학, 계명문화대학교 사업단장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전주비전대를 포함한 5개 참여 대학은 △ICC 산업분야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ICC 맞춤형 재직자 대상 프로그램 추진 △ICC사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업차지 방안 공유 △ICC 협력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애로기술지도 플랫폼 제공 △공유·확산 워크숍 개최 등에 합의했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각 대학별로 운영 중인 ICC가 공동프로그램과 벤치마

킹 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유·협업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실무진간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신학공동기술개발과제 우수사례 및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특강을 진행해 직원들의 실무역량 강화에 도움을 줬다.

전주비전대 최승훈 단장은 "5개대학 공유·협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워크숍을 통해 각 대학의 ICC가 보유한 재원을 상호 보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협력 체계를 토대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은성 기자

### 전주기전대, 도내 중·고교 진로상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최근 도내 중·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30여 명이 참석해 △학교 진로 교육 우수 사례와 변화하는 진로 교육의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수업교육과 체험 스타로 연수 등 체험형으로 진행됐다.

특히 승마 교육 및 체험은 말 산업 분야의 생소한 진로에 대한 이해와 교육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타로카드 연수는 타로카드란 '매개체'를 통해 학생들과 교사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냈다.

전북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문영주 회장은 "전주기전대학 학교법인인 전북발전추진위원회에서 진행된 체험형 연수를 통해 변화하는 진로 교육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타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에 참여한 모든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표해 고마움을 전한다"며 "전주기전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향후 청소년 진로설계 동반자로서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진석 입학홍보처장은 "최신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진로교육의 방향과 미래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기쁘다"며 "전주기전대학에서 현재 운영 중인 꿈길 프로그램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

### 도교육청,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 운용 목적·성과 평가, 자산배분정책 등 담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공무직원의 퇴직급여 수급권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창조내(별관) 회의실에서 제1회 전북도교육청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300명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

도록 한 심의·의결기구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2명 등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해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심의했다.

한편 도교육청에서 수립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계획서에는 적립금 운용 목적과 목표수익률, 자산배분정책, 적립금 운용 방법 선정 및 운용 성과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원창 행정과장은 "위원회에서 마련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소속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할 것"이라며 "적립금의 체계적 관리 및 합리적 운용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유·초등교사 1차시험 합격자 발표

### 유 32·초 63·특수(유) 2·특수(초) 14명 등 총 111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및 제2차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www.je.go.kr)에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1차시험에서는 79명 선발에 유치원 교사 32명, 초등교사

69명, 특수유치원교사 2명, 특수초등교사 14명 등 총 111명이 합격했다.

합격자는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가운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모집인원의 1.5배수를 결정,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했다.

응시자 개인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오는 25일까지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je.go.kr)에서 본인 인증 시 조회할 수 있다.

제1차시험 합격자는 13~16일 4일간 관련 서류 등을 전북교육청 창조내(별관) 2층 출제문(1회의실)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제출보다는 비대면(등기우편) 제출을 권장했다.

제2차시험은 2023년 1월 4~6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2023년 1월 2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e.g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권리 확보할 것"

### 송옥진 신임 전교조 전북지부장 당선... 사무처장에 오도영 후보

"발로 뛰는 교권보호와 타협 없는 투쟁으로 지난 2년의 변화를 선생님들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9일 실시된 전교조 전북지부장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한 송옥진(현 전북지부장, 전주우송초)-오도영(현 전북지부 사무위원장, 전주에슬고) 후보가 전체 투표자의 95.4%를 득표해(투표율 73.2%) 제21대 전교조 전북지부장·사무처

장에 당선됐다.

송옥진-오도영 당선자는 지난 20여 일 동안 하루 20개가 넘는 학교를 방문하면서 조합원들을 만난 열정으로, "교권에 대해서는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권리를 확보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퇴행을 저지시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현직 교원 감축과 공무원 연금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 "교사들의 삶 위로·해결책 제시할 것"

###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선출... 수석부위원장에 홍은경 후보

지난 7~9일 실시된 제3대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선거에서 정재석(교창초)과 홍은경(전주신화학교)이 단독 출마해 찬성 98.13%로 선출됐다.

전북교사노조 3선 위원장이 된 정재석 위원장은 만 41세로 정읍 출신이며 배영고, 전주교과(초등교육과)와 전주교과 교육대학원(초등교육방법)을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영어교육학 박사 수료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2020년 3월 창립, 전교조 전북지부와 함께 노조로서 전북교육계를 이끌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정재석 위원장-홍은경 수석 부위원장은 '선생님의 삶을

바꾸는 노조'와 '선생님의 곁에 있는 노조'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교사 수당 인상, △학교업무부담완화, △교사 전문성 신장 활성화, △교사의 인권 보호 지원 강화, △전북교사노조 2000 조합원 시대가 있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사노조가 교사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교사들의 삶을 위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노조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홍은경 수석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선생님들의 의견이 전북교육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최종합격자 4명 발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4명을 발표했다.

합격자는 공업(일반기계) 2명, 공업(일반전기) 1명, 시설(건축) 1명 등 총 4명이며, 이들은 오는 15일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정은성 기자